

스리랑카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서

경계 넘어서는 수평의 연대 구축 필요

글 **쥬드 랄 페르난도(Jude Lal Fernando)**

(더블린대학교 분쟁 후 정의를 위한 트리니티 센터 디렉터, 스리랑카 민중재판 코디네이터)

번역 **이슬기** 광주트라우마센터 연구기획팀

1983년 7월의 일이었다. 나는 중등교육을 막 마쳤고 대학 입학 앞두고 있었다. 수백 명의 타밀인들이 학살당했다.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했다. 집과 재산은 약탈당하고 불에 탔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속한 싱할라 공동체의 인종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됐다. 스리랑카 경찰과 치안부대들은 가해자들이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도록 허락했다. 국가가 이들에게 완전한 면책권을 줬다. 싱할라 사회는 이런 대량학살을 7월에 벌어진 (타밀 반군) 타밀엘람자유호랑이(LTTE)가 스리랑카 (싱할라인) 군인 13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정당화했다. 타밀엘람자유호랑이는 스리랑카의 북쪽과 동쪽에서 분리자치국가를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언어의 벽을 넘는 것

나는 학교교육 과정 내내 나의 나라가 단일국가여야만 하고, 그것이 싱할라인들의 것이며 타밀인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다고 배웠다. 우리 싱할라인들이 (스리랑카)섬 전체의 진정한 후계자들이고, 타밀인들은 침략자라는 것이다. 나는 왜 타밀인들이 분리자치국가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의 싱할라 공동체 사람들이 그들을 상대로 대량학살을 벌이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1983년 7월은 내 양심에 깊은 가책을 남겼다. 젊은이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타밀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언어의 벽을 넘는 것, 이것이 내가 경계를 넘어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인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 타밀 반군들을 수 주 안에 몰살하겠다고 장담했다. 싱할라어 뉴스는 군대가 적을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국영 언론이 전하는 말을 믿으면서도 1983년 7월에 생긴 나의 깊은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같은 대학



2010년 1월 14~16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된 스리랑카 민중재판. 30명의 타밀인 생존자들이 참석해 증언했다.

에서 공부하고 있던 타밀인 학생들 일부와 개인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리랑카의) 북부와 동부 출신이었다. 개인적으로 접촉하기, 이것이 내가 경계를 넘는 두 번째 발걸음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국영 언론을 통해 접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수천 명의 타밀인들이 체포됐고, 실종됐고, 고문을 당했다. 모든 마을에 군부대가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타밀인 젊은이들이 스리랑카 정부에 저항하는 타밀엘람자유호랑이에 합류했다. 나는 나의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다. 1980년대 말이 되어 나는 나의 부모와 선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싱할라인들이 밀집된 남쪽과 타밀인들이 밀집된 북쪽을 가르는 물리적 경계를 넘었다. 현실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이 시기는 싱할라인들 지역인 남쪽에서 사회경제적 정의를 요구하는 무력 저항이 벌어져 이를 진압하는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수천 명의 싱할라인 젊은이들이 살해당한 때이기도 하다.

물리적 국경 넘나들기

나는 전쟁과 평화가 모두 절정에 이르렀던 15년간 여러 번 물리적 경계를 넘나들었다. 나는 기본적인 음식과 의약품, 피난처가 없는 지역에서 타밀인들이 겪고 있던 극심한 고통도 보았다. 수천 명이 여러 번 집을 떠나야 했다. 나는 싱할라인들의 남쪽 지역에서 내가 목격한 이런 현실에 대해 말했고, 타밀인들의 북쪽 지역에서는 싱할라인 젊은이들이 스리랑카 정부에 의해 학살당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나의 의도였다. 나는 일부 싱할라인 단체들이 타밀인들의 지역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경계를 넘기 위한 시도일 뿐만 아니라 양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스리랑

카 정부의 인종주의적 군사작전은 너무나 강력했다. 싱할라인 대다수가 대량 파괴를 목격하면서도 전쟁 승리 가능성에 도취되어 있었다. 스리랑카 정부에 대해 항쟁을 주도하던 싱할라인 정당조차도 전폭적으로 전쟁을 지지했고, 그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학살의 기억은 완전히 잊어버렸다. 이때가 내가 진짜 이념적 경계를 넘어서는 시점이다. 타밀인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이유가 싱할라 정부의 폭압 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싱할라 국가’(이념)를 버렸다.

분쟁의 지정학적 측면 교육

1990년대부터 타밀엘람자유호랑이는 타밀인 지역의 광대한 지역을 통치했다. 그것은 국가 안의 국가였다. 다양한 복지제도를 갖춘 아주 잘 조직된 민간행정기구가 국가의 역할을 했다. 타밀인들은 단순히 희생자에 머물지 않고, 그들만의 세속적인 정부를 건설했다. 그것은 ‘싱할라인 불교도 스리랑카 국가’ 같은 종교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타밀 국가를 일으켜 세운 것은 타밀인들이 지닌 억압에 대한 저항이었으며 파괴 속의 회복력이었다. 나는 소수의 싱할라인 정치 분석가 단체들, 기자들, 활동가들과 함께 스리랑카 분쟁의 뿌리를 심도 있게 연구했다. 대영제국이 스리랑카 통합 국가 제도를 만들어 싱할라인들에게 권력을 주고, 싱할라인들이 타밀인들보다 인종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인도양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스리랑카 섬을 단일체로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분쟁이 단순히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의 경계 넘기 여정에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디뎠다. 나는 나의 싱할라인과 타밀인 친구들과 함께 싱할라인들의 남쪽 지역 전역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분쟁의 지정학적 측면을 알렸다.

2002년에는 스리랑카 정부와 타밀엘람자유호랑이가 양쪽이 평화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 역사상 처음으로 스리랑카 분쟁에 정치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이는 합의를 통해 억압적인 스리랑카 정부 구조를 바꾸고 타밀 정부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했다. 나와 동료들은 600여 명의 타밀인과 싱할라인들이 모인 대규모 타밀-싱할라 문화 행사를 개최해 두 공동체의 역사적 투쟁 과정에서 양쪽의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타밀엘람자유호랑이와 스리랑카 정부가 권력을 나누기로 합의된 정치적 해결책에 반대하고, 스리랑카 정부의 대(對)타밀 분쟁을 경제적,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전쟁이 다시 시작됐고, 약 7만 명의 타밀인이 목숨을 잃었다. 타밀 자치정부의 최고위급 지도자들이 모두 살해당하면서 타밀 자치정부도 완전히 파괴됐다.

나의 절친한 친구 상당수가 이때 세상을 떠났다. 나는 전쟁이 끝나기 전 스리랑카를 강제로 떠나야 했다. 나와 함께 했던 수많은 친구들도 나처럼 스리랑카를 떠났다. 나는 아일랜드로 망명하기로 했다. 왜 아일랜드였을까? 아일랜드 사람들은 타밀인들처럼 식민 권력에 저항해왔으며 이후 북부 아일랜드에서 권력을 나누는 평화 협상 절차에 들어갔다. 이것이 나에게서는 살아갈 희망을 주었다.



싱할라 민족주의 극단주의 단체들이 지난 2003년 10월 콜롬보 신시청사에서 열린 싱할라-타밀 문화교류 행사를 방해하고 나서 주최측과 반대측이 철장 담장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사진 = 타밀넷)

강대국의 학살과 평화협상의 진실

전쟁을 지지했던 세계적 강대국들은 의도적으로 학살의 진실과 평화협상의 진실을 감췄다. 망명을 떠났던 나와 내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치는 더블린과 브레멘에서 스리랑카 민중재판(People's Tribunal on Sri Lanka)을 주최하는 것이었다. 주로 싱할라인 활동가들이 주도하고 아일랜드와 독일의 인권운동가들이 이 민중재판을 지원했다. 우리는 스리랑카 민중재판에서 수많은 타밀인 피난민들로부터 다량의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스리랑카 정부와 치안부대들에 대해 인종학살 혐의 유죄,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는 타밀엘람자유호랑이를 상대로 한 스리랑카 정부의 전쟁을 지원함으로써 인종학살에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민중재판은 타밀인들이 요구하는 민족자결권을 인권으로 봤다. 이는 타밀인과 싱할라인 활동가들이 깊은 화해에 이른 순간이었지만 스리랑카에서는 이뤄지지 못한 채 외국에서만 가능한 것에 그쳤다. 스리랑카에서 정부는 '화해'라는 단어를 타밀인들에게 과거를 잊고 타밀 지역에 강력한 군사화와 토지 수탈, 싱할라 불교 사원 건설 등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데 쓰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화해라는 단어는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다. 진정한 화해는 스리랑카 민중재판에서 보여준 대로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

나는 15년째 망명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나는 이제 경계를 넘어서는 나의 여정에서 또 다른 걸음을 내디디고 있다. 그것은 제주와 오키나와, 카슈미르, 팔레스타인, 남아프리카,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 국제적인 군사력에 맞서 계속해서 저항하고 진정한 평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나는 경계를 넘어서는 수평의 연대를 구축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경계를 넘어서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